

# 무안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만든다

국비 2억1500만원 확보...2029년까지 2만㎡ 규모

전남도, 주민 접근성 높여...안전·체험 레포츠 허브

전남도가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의 출발선에 섰다. 2026년 정부에 산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5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간 공백지대로 남아 있던 서남권 산림레포츠 기반을 전남

형 공공 모델로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공립 산림레포츠센터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 집중돼온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최초의 공립시설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지역 산림레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체험 접근성을 본격적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무안을 송달산 일원 2만㎡ 부지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0억원(국비·군비 각 1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집라인, 신약자전거, 로프·트리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자연친화형 시설로 설계해 도민과 관광객이 숲을 즐기

고 체험하는 안전한 레포츠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교육·안전·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포함한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장해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즉시 착수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형 특성과 수요 분석을 반영한 전문적이 고 정밀한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초기 설계 완성도가 곧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

다는 판단 아래, 산림레포츠 전문기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상지인 송달산 일대는 천혜의 숲지형과 뛰어난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인근에 조성 예정인 숲속 야영장과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는 후계원 등을 연계해 서남권 산림관광 레포츠 거점으로서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체험시설을 넘어 '산림레포츠·산림교육·산림자유'를 잇는 복합 숲 플랫폼으로 확

장될 여지도 크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서남권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무안군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와 추가 국비 확보를 자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강기정 광주시장 “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전력”

실종자 수습 마지막 날 현장서 브리핑...진상조사 TF 가동

시민 눈높이서 재점검...희생자 가족 종합지원체계도 마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사고 발생 사흘째이자 마지막 실종자가 시신으로 시신으로 수습된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사고 직후부터 구조에 온 힘을 쏟았지만 안타깝게도 네 분 모두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사고로 시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48시간 만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꾸려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의 문제점 여부를 시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 발주 51개 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며 “도 희생자 가족을 위한 장례·법률 자문, 긴급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에 투입된 소방안전본부와 119 구조대원, 경찰·노동청·행안부·국토부 관계자, 그리고 불발음 감내한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지금 단계에서 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를 기

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 13일 구조 당국이 4명의 매몰자를 모두 수습하면서 인명구조 작업은 마무리됐다.

광주대표도서관은 혐오시설로 인식됐던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 중이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 위기 대응 전략 논의

산업계·연구기관·노동계 협의체 확대회의...해법 모색

전남도는 최근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 확대회의를 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의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남사크래킹센터(NCC) 설비 감축에 따른 구조전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주요 기업, 연구기관, 노동계,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와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최대 단일 화학산업으로 전남 경제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며 생산·수출·고용 지표가 동반 하락하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주요 기업의 2025년 2분기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도 13.9% 줄었다. 고용률은 64.2%로 0.5%p 내려왔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44% 증가했다.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61% 급감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일감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 NCC 4사의 기초유분 생산 기능을 하려고 설비 감축·공장 폐쇄 검토 움직임은 지역경제에 추가 부담을 예

고하고 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3대 방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270만~370만 규모의 NCC 설비 감축이 예상되면서 여수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경영에도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은 위기 산업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특별법은 사업재편, 구조조정, 규제특례, 세제혜택, 연구개발(R&D)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어 여수 석유화학 기업이 추진 중인 전환투자·공정 효율화 사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핵심 현안인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전환기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메가프로젝트 추진, 국고 확보를 통해 여수 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시의회, 문석환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적격’

“재정 건전성·도시철도 2호선 안전 개통 해결 책임자”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검증해 적격 판정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공사의 최대 현안인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 안전 개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 의지를 갖춘 책임자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전문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킨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분야 지식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취임 후 모든 공사 현장과 2호선 관련 현장을 빠짐없이 섭렵해 몸으로 체득하겠다는 강력한 현장 중심 경영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후보자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문석환 후보자는 20년 이상 강경평가사로 활동한 자사·재무관리 전문가로,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과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위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전달되며, 강 시장은 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임명한다.

장승기 기자 sky@

##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

내년 3월 코레일·SR 교차 운행

항공사고조사위 총리실 이관도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교차 운행은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내년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국 3특’ 초광역권 실현에 나선다.

또한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본격화한다. 공적 주택은 향후 5년간 110만 가구 이상 공급하며, 청년·신혼·출산가구·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을 강화한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장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통합을 추진 중인 코레일·SR은 내년 3월 교차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시, 주요 발주공사현장 긴급점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등 30~40여곳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5억원 이상·공정률 10% 이상 건설현장을 파악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사구간을 비롯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 백운동 지하차도 건설현장 등 30~40여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점검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구조물 안정성을 비롯해 안전장구 비치 여부, 작업자 안전규정 준수 여부, 교육 등 공사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보강 작업을 실시할 방

침이다.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건설현장 109개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도 강화한다.

동절기 대비 안전대책 수립 여부, 굴착면 지반 안정성 확보 여부, 폭설·강풍 대비 가설구조물 안전조치 여부, 결빙·미끄럼 위험구간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비상제설자재 확보 및 장비·자재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폭설·강풍·결빙 등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가설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취약요인을 최대한 찾아내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